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2호 [무계 제25385호] 주1 05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천애하는 청년대표동지들!
나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전체 청년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청년대표단 성원들을 축하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제일조선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청년들과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철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입니다.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청년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실현하는데서 청년동맹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서 당과 군대와 함께 청년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동맹이 강하면 이 세상 두려울것이 없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밝히신 당, 군,청에 관한 사상을 구현하여 전당,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함께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갈 때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될것입니다. 전당과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강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진로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근본담보로 됩니다.
청년동맹은 전 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기치 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평도체제를 철저히 세우야 하였습니다.

대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넉넉을 반영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함께 모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것은 우리의 청년동맹을 영원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드물지 않는 기쁨을 마련한 일대 사변이며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투쟁전통을 이어 당의 평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총정의 대회,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전선에 힘있게 불러일으킨 총진군대회이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대표동지들!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뜻깊은 대회장의 연단에 서고보니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시고 자랑높은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정모의 정이 가슴뜨겁게 안겨옵니다. 청년동맹이 걸어온 70년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평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만드는 조선청년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애국헌신이 수놓아온 역사입니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년사업을 결속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선언과 탁월하고 세련된 평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맡겼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혁명평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었으며 세상에 볼드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은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평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입니다.
주체의 청년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자랑찬 년대들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영웅적위훈이 깃들여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였습니다. 가말치려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참군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움으로써 영웅조선의 건국신화를 창조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구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린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영웅조선의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관가름하던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시기에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평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주체혁명의 명백과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믿음 이면 지수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집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판철의 혁명정신이며 오늘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본격적인 혁명정신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역사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되었으며 당의 투리에 천금만금의 성세를 이룬 천하무적의 청년대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부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장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한탄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 청년들에게 경의를 드리며 오늘날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의 위훈을 펼쳐서 새겨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동지들!
오늘 청년동맹앞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착후대, 이속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펼칠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불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입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청년동맹은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동맹일꾼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총성을 바쳐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을 청년운동의 승리의 기치로, 청년동맹강화발전의 근본지침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수령님들의 사상과 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판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평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동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의 결정, 지시가 청년동맹중앙으로부터 하부단계까지 제때에 전달됨되고 즉시에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습니다.
청년동맹은 사상교양단체이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청년동맹의 기본임무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이 행사나 경제실무사업에 달려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선임무인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없으며 청년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청년동맹이 무기력한 조직으로 될수 있습니다.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는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입니다.
청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자랑분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무사로 역세게 키우며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넉과 기상이 나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형식과 계기를 통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2 번 으 로 계 속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1 면에서 계속

청년동맹조직들은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성교양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속에서 김일성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반세계교양, 도덕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을 엄밀한 조국애를 지닌 참된 애국자, 불굴의 혁명신념과 무월한 반세계교양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로,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문명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교양체계운영을 신속있게 하고 그 실효를 최대한으로 높여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당의 목소리가 웅장없이 울리게 하며 청년들이 늘 청정한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체득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재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진수나 채우는 식으로 하거나 판매 막은 식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년들의 특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체계있게, 전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년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청춘의 열성이 솟아오르게 하는 진실하고 실효가 큰 교양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구상에 따라 조국방위에 강대한 사회주의국가,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막힌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대로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미망한 본분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치자!》 이것이 현시기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의 최후대, 조국보위전의 주력부대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 떨쳐나서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내무부문의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선인 반계군사건설을 지킨 선군호방적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위와 사회주의제도를 감성철벽으로 지키며 반드시 한번은 불시에 광장을 보아야 할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인 미제와의 판가리결사전에서 새로운 진승신화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누구나 다 열렬한 애국심과 절절한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군사훈련에 성실히 참가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전진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원수들의 침략과 파괴해적정동으로부터 사랑하는 조국과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수호전은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정신의 대결입니다. 오늘 계급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새 세대 청년들을 과녁으로 삼고 그들을 부패락시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변질 와해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사상정신력의 강자, 혁명적신념의 강자로 강경하게 맞서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우리 식 사회주의의 화원에 들어나는 온갖 비사회주의적이며 이색적인 독초의 싹들을 멍아시기에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부르르고있습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격진장들은 피끓는 청춘들의 활무대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제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파강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을 새겨들고 일으켜 세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매일, 매달, 매 분기마다 넘쳐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실천속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선군정년회발상투쟁운동,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위훈창조의 불길을 새겨쳐 지켜

올려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청년편으로 흥성거리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의있는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훌륭히 해제함으로써 청년들격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은 앞으로 인민군대 건설부대와 함께 청년돌격대를 앞장에 내세워 건설의 대년영기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단숨에 산도 뚫고 바다도 메우는 기세와 달력으로 이 땅위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당의 부름에 화답하여나선 청년들이 청년건설부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기세충천하여 나아갈수록 온 나라가 들끓고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입니다.

청년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는 세월에 민강하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융솟아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분발하여나서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청년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두뇌전, 기술전의 전열에서 청춘시절의 하루하루를 값있는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어나감으로써 강성부흥하는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굽어보면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최첨단과학기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청년들은 전진과학기술인쇄화실현에 앞장서며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의 능수가 되어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연료와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학생청년들은 순간도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편마우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 있게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문명강국건설의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문명에, 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의 문화가 제일이요 우리 식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세대들이 이복하여놓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유산들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 식 사회주의문화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영웅청년문화가 활짝 꽃피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속에서 도덕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혁명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집단의 단합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중도덕과 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대중체육, 국방체육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 전강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이바지하여 온 나라를 사회주의진영으로 꾸리는 데서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래 세월 지속되어온 민족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이 땅위에 존엄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민족대업의 앞장에는 마땅히 민족의 아들딸이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서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청년들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똘똘한 힘으로 투쟁함으로써 미제와 반동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하며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과 해외동포청년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의 머리위에 백화화를 불씨우려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침략정도발족을 저지파란시키며 역사적인 민족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제일조선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청년들은 존엄 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조선청년운동은 세계청년운동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라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청년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국제적정의와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시고있습니다.

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구현하여 세계 진보청년들과의 반제대결,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청년운동의 강화발전예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의 투쟁을 위한 청년들의 투쟁에서 본보기가 되고 선봉대가 되어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주체의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야 합니다.

청년동맹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동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배양으로 높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정치조직이며 청년운동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이 강하고 그 전투적 위력이 높이 발휘될 때에만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청년운동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조직강화의 된바람을 일으켜 각급 동맹조직들을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영예화된 청년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청년동맹조직안에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고 제때에 보고하며 상급동맹조직들이 아래동맹조직들의 활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료해강박하고 대적하는 영연한 사업체제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중앙으로부터 초급조직에 이르기까지 전 동맹안에 모든 사업을 당의 방침과 동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을 강화하는데서 기본고리는 청년동맹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동맹초급조직들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청년동맹 각급 위원회들에서는 초급조직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초급일군들의 수준과 활동능력을 높여주고 책임적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동맹의 말단지도단위인 시, 군 청년동맹이 초급조직들의 사업을 솔게 장악지도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조직생활과정이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청년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생활은 청년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원으로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보람있고 값있는 정치생활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워 모든 동맹원들이 청년동맹조직을 자기의 정치적생명의 보배로 귀중히 여기고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조직생활을 정규화하고 조직규율을 강하게 세워 청년들속에서 동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거나 조직생활에서 유리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조직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착시켜 조직생활의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청년동맹의 교대자인 소년단조직을 강화하고 소년단원들을 잘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소년단원들은 앞날의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기동감들이며 소년단을 강화하는것은 청년동맹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것을 제일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각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소년단원들에 대한 교양에서 학교교양과 가정교양, 사회교양이 밀접히 결합되도록 하여 모든 소년단원들과 소년단조직들을 우리 당의 참된 소년군위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까.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청년사업의 주인인 청년동맹일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이 청년들을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기관자가 되고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될 때 500만 청년대오는 단 하나의 불발탄도 없는 강철의 전위대로 강화되게 될것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일군들의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게 정치사상적으로 건설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핵심청년들로 동맹일군대렬을 제때에 보충하고 갱신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동맹일군후비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청년동맹일군의 임무를 잘 알고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청년사업을 철저히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의 사상에 밀착하여 진행해나가며 당의 청년사업방침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은 동맹사업발전을 위하여 품과 마음을 다 바치는 헌신의 투사, 비상한 정열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은 언제나 동맹사업발전을 위하여 사색하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며 왕성한 무지와 진취적인 일본새로 사업을 참신하게, 혁신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모든 일을 청춘의 심장이 뛸듯게 동이 크게 작전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낸다는 드센 배짱과 무지로 완강하게 내밀어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은 대오의 앞장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투쟁의 기수가 되고 모든 면에서 동맹원들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들끓는 전투장에 몸을 잠그고 이렇고 힘은 일에 남뉘어 어깨를 들이밀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모범으로 동맹원들을 무장파 위훈으로 불려일어나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혁명과업수행과 조직생활에서 동맹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소박하고 겸손하며 청렴결백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은 동맹원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맹원들의 친근한 말벗, 만수이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고 동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보르해주며 동맹원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동맹원들을 위하여 열사부투하여야 하며 한명의 뒤떨어진 청년도 없이 모두가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도록 보살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은 아는것을 많이 쓰는 조직력과 활동력,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여러 면에서 박식하고 청년동맹사업수요에 정통하여야 하며 동맹원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방법과 묘수를 체득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노해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며 선동연설도 잘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청년들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한 부분이며 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잘 이끌어주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사업을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도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다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차별없이 대해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스히 보살피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동맹일군들을 책임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이 청년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청년일군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당일군으로도 우선적으로 동용하여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이 높은 영예와 긍지감을 가지고 동맹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떠맡어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은 나라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청소년들과의 사업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며 청소년들을 키우는것은 전국적, 전민적사업입니다. 당일군들은 물론 사회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청소년들의 교양자가 되고 학부모가 되어 그들을 솔게 교양하며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적극 도와주어 우리의 새 세대가 진국적, 전사회적인 지도와 방조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표동지들!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뚝뚝쳐 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모두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하여, 청년강국의 휘황한 배일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슬기롭고 영웅하고 미더운 500만 청년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에 특기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27일과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주체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가려는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 영웅적조선청년의 역센기상을 만천하에 펼쳐가는 500만 열렬청년들의 대회합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위대한 전로따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이번 대회는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스런 역사를 수놓아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서 리정표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8차대회이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중시하여 총화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직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장은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판관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온 나라 청년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호모의 정으로 섬세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상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이 형상되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말이 걸려있었고 휘날리는 청년동맹기발들이 부각되어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라는 구호들과 주체조선의 피끓는 청년들의 상징인 회불봉, 청년동맹마크모형이 나붙어있었다.

4 번 으 로 계 속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결정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

주제105(2016)년 8월 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책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불멸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는 일심단결의 대회, 중정의 대회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조선청년운동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뜻깊은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하는것은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결부하여 새롭게 명명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하에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

시켜오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주체적청년조직건설과 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청년운동의 개혁과 승리적전진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실행하여온 성스러운 역사이며 청년동맹을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온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이다.

주체청년운동의 개혁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조선청년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규정해주시고 청년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합계 이바지하는 가장 혁명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이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주체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전면에서 나신 력사적시기에 《전 동맹을 김일성주의의 전무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해주시였으며 청년동맹의 명칭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여 주시고 혁명의 해불도 안겨주시어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한

성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명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서도록 길을 닦아주시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이라는것을 청년동맹규약에 명문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청년동맹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으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을 청년운동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숭고한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전군에서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오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불멸신념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불멸의 전위대로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조국이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으로 일떠서고 청년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가 되어 조국과 민족의 양양한 전도를 열어나가고있는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서도록 길을 닦아주시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이라는것을 청년동맹규약에 명문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청년동맹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으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을 청년운동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숭고한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전군에서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오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불멸신념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불멸의 전위대로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조국이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존함과 결부하여 부들수 있는 명실공히 수령의 청년동맹, 당의 청년전위조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주체청년운동발전의 현실적요구와 500만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결부하여 새로 명명하도록 하시니 최상최대의 영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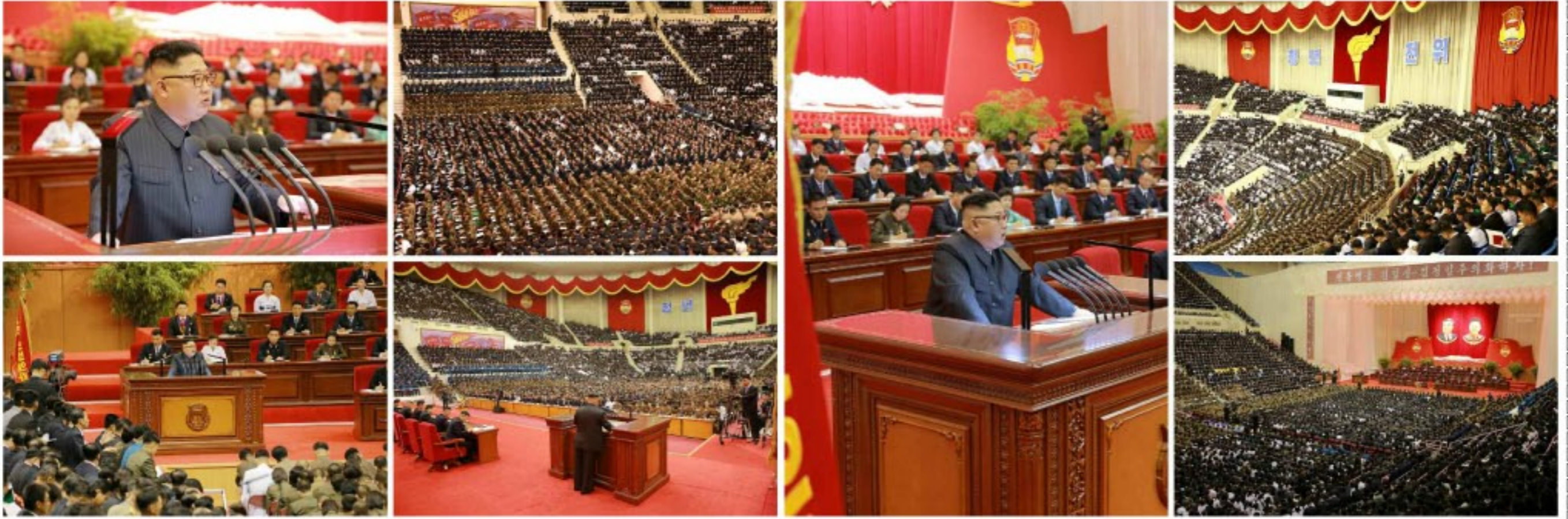
여기에는 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하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직후대, 익숙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주체의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청년들의 열렬한 헌신과 애국적열정을 청년동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역적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3 번 으 리 계 속

대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대표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행정, 무력기관, 청소년교양관리부, 문 일군들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한없이 승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행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들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황병사동지, 최봉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수길동지, 김봉우동지, 박태성동지와 리일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 군대와 사회의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 동맹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 김영녀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대표들이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열화같은 흥분의 정을 담아 꽃바구니를 드리고 상가 인사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과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기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끝없이 총명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구호선장이 울려 퍼지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청년전위》라는 웨침으로 무장정 확답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의 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출하였으며 서기부를 임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경제, 사회계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현대성 및 친선단체 대표들,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과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집시위원회의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4.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
5. 청년동맹규약개정제에 대하여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전중앙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부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사로청 제8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청년동맹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행도만에 영광스러운 수행의 청년동맹, 당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역사의 준엄한 폭풍을 맞받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전인민적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여온 긍지로운 나날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는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창조하고 세상에 불모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치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적

거인들로 든든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입니다.》

보고자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행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숭고한 미래관이 어려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행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때 시기, 대내외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행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혁명투쟁과 사회혁신에서 가장 이르고 힘든 부분을 담당할 신봉대, 주력부대,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어진 골간부대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청년들이 전위대가 되어 혁명운동을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주체적청년운동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전략적으로서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수행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믿음직한 전위부대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화불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행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땀을 흘려가시며 청년동맹과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억측부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계신다.

청년교양에 전사회적인 힘을 넣으며 청년동맹에 품적품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전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 창조적 거인들로 키우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 령도와 각별한 보살피심

속에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

보고자는 총결기간 당의 령도밑에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청년동맹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청년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행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로청 제8차대회에 보내주신 역사적서한에서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첫 세대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무뎠던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입심단결하여 당의 행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갈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을 수행의 사상과 행도를 높이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인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두말이 밝혀주시였으며 위대한 수행님을 모시고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어 대회가 수행의 청년조직으로서의 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는 데서 전환적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주체 85(1996)년 1월에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대표자회는 우리 청년동맹을 수행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획기적의의물 가지는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청년운동발전의 합법적요구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수행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품소 수여하시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사업과 임무에 대하여》와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동맹이 수행의 청년동맹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들이 주체의 청년운동의 전통을 이어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를 높이 펼쳐나가도록 결음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청년동맹을 수행의 청년조직, 당의 믿음직한 정치후비대로 강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행님들의 손길아래 시작되고 장성 강화되어 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독창적인 정식화를 주시였으며 청년동맹을 수행님과 장군님의 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기를 동맹사업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비롯한 교전적로작들에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으로써 우리 청년동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행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청년동맹이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당과 수행의 사상과 행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총성의 전위대로 튼튼히 다져진것이야말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총결기간의 주되는 총화이다.

성과는 다음으로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혁명적, 투쟁적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이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완성하며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억세게 준비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었다.

5 번 으 리 계 속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4 면에서 계속

총대를 틀어쥐고 반미대결전의 제1선을 지켜선 인민군대의 청년군인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육안용사들로 억세게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는 선군시대 청년교양의 숭고한 귀감으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만드는것을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청년동맹조직들이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을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전성을 직접 밝히하시고 사적관을 백두산결세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이 절대성되어있는 사상교양의 훌륭한 거점으로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으며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곳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제2차 전국청년미종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사령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청년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내세워주시며 훌륭한 청년들을 키운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감사문까지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서 청년들을 고상한 미덕과 미용의 소유자로 키우기 위한 궁정창조의 불꽃이 온 나라에 더욱 새차재 락면지제 되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당의 부름에 돌볼을 가리지 않는 높은 혁명성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고상한 도덕적품모를 지닌 주체위업제승자들의 대우를 기워낸것은 위대한 당의 청년중시정치야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성과는 다음으로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도록 한것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조국도민에 청년동맹은 청년들이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를 세우는데서 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돌출해야 온 나라가 돌출한다고 하시며 청년동맹에 골격골격된 대상들을 맡겨주시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가 되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새차재 일으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제로 맡겨주시었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부의 찾으시어 청년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해 남짓한 기간에 무려 4차례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결연결을 이끌어주시었으며 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우리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으로 명명해주시고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더불어 우리 청년동맹은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당을 결사옹위하는 혁명신념과 애국충정의 성벽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으며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백두정충으로 굳지 않을 불리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우대가 자라났다.

중요한 성과는 다음으로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든든히 준비시켜준것이다.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으며 소년단원들을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소년혁명가, 지덕체를 겸비한 당의 소년군위대로 키울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은 청년동맹의 교대자이며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청년동맹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전담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선군조선의 새 세대로 든든히 준비시켜나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시었다.

혁명의 미래를 가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대같은 후대사랑은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나날에 중단없이 울려 퍼진 벼슬의 종소리에도, 만경대혁명학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무봉고급중학교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와 과외교양기지를, 즐거운 야영결에도 령력히 새겨져있다.

어머이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조선소년단장령전을 해마다 국가적행사로 크게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정으로 울퉁히 꾸러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청소년과외교양기지들과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메아리이다.

청년동맹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소년단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임무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소년지침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을 아는 열렬한 소년혁명가들로 자라나도록 하였다.

보고자는 총결기간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시고 청년동맹과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막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뜻을 이으시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의 최정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었다.

그는 오늘 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앞에 혁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후비대, 적후대, 익축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은 청년동맹의 기본사명이다.

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전위부대로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대상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경사보위하여야 한다.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수령경사옹위에 조국과 혁명,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견결한결의의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제철

기어 무한한 계급의 전위부대로 준비시켜야 한다.

도덕교양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청년들이 혁명신념을 존대하고 집단과 통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폐절을 잘 지키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풍모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청년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적용인물 모르고 당이 준 명령을 거어이 관철하는 선군시대 청년혁명가들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한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이 단숨에 산악도 뚫고고 날바다도 배무며 시대를 뒤쫓는 백두청춘의 영웅적기상과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문예를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려는 당의 믿음에 거어이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자강역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동력, 총매진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청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전면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청년학생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든든히 준비시켜 청년과학기술행군과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성보화하고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새차재 나래치게 하는데서 청년들이 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면으로 계속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5 면에서 계속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청년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업에 적극 참가하여 과학기술수준을 무단히 높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배두산영웅청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꽃을 새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당의 부름에 피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대답하며 산으로, 바다로 달려나간 전세대에 벌려진 강령적인 전열문제에 따라 배워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젖히며 청년들처럼, 청년근위대운동에 과감히 전격하여 온 나라가 청년관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물적결을 힘있게 벌려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인민경제의 높아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금속, 철도운수, 기계공업부문과 화학, 건설, 인쇄공업부문의 청년들은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전투와 대중운동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

배두산영웅청년들격대아 온 나라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그 기백, 그 기백으로 편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총돌격전을 벌리며 속도전청년들격대아에서는 당의 주체적전공시학사상의 요구대로 신 전력, 신 미학사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전공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농업부문과 수산부문, 경공업부문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축산과 파수, 양어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며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할 뿐 아니라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청년들, 소년단원들 더 많이 조성하고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며 향토애호근위대활동을 비롯하여 극도관리사업, 환경보호사업에 청소년학생들을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청년들이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며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이며 국제경기장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세속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배두산영웅청년들격대의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청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그 어디에서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생활을 앞물리고 견디게, 문명하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부문 청년들은 창작창조활동을 혁명적으로 왕진하게 벌려 천만군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는 데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도록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청년군인들을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전우, 우리 당을 총대로 용위하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분방로 나아가는 제일결사대로, 일당백의 열매나는 싸움군들로 역세게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청년학생들이 군사를 배우고 전민항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인민군대를 몸심방면으로 원호하여 온 사회에 군사

중시기풍, 원군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국방공업부문의 청년들은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근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우리 식의 위대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핵무력을 증수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든든히 다지는 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 당을 제일 앞장에서 용위파라 당 제7차대회를 빛나게 장식한 것처럼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뜻깊은 용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는 데서 청년강국주인공들의 기성과 위훈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파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은 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앞에 내서는 중요한 임무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선과 방침을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선봉적역할을 할 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통일의 구상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통일의 대강이 앞길을 밝혀주고 있으며 피끓는 청년들이 통일선봉대가 되어 힘차게 싸워나가기에 존엄높고 무장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앞날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 진보적청년들과의 친선과 단결,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동맹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오늘 조선청년운동의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있는 자랑한 현실은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히며 세계청년학생운동을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하고 세련된 영도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동맹이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배두산청년강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

파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청년학생운동의 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앞에 나선 무장고도 영예로운 파업을 성파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총결기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청년동맹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그 전투력이 비약히 높아졌지만 청년동맹사업에서는 결함들도 적지 않게 나타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전 동맹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업적영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명령지시, 당정책을 즉시 접수하고 즉시로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즉시로 집행하고 보고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

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대중적청년조직의 성격에 맞게 핵심대원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동맹조직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맹원들이 규약과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청년동맹생활이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치적후비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역세게 키우는 혁명대학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은 초급인군대원을 잘 꾸리고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 주며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강화하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

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동맹사업의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근본성격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동맹사업의 중심, 핵으로 들어주고 청년들의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왕진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교양방법인 공정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공정장조의 불꽃이 새차게 타넘치게 하고 선군시대불격동시키는 미덕과 미풍이 더 많이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초급인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동맹원들을 오늘의 참전군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나팔수, 왕된 선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을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의 교내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소년단사업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모든 소년단원들을 항일의 아들단원들과 전철의 소년근위대, 소년혁명산불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청년동맹인군들은 당의 의도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청년들에게 창조와 위훈의 나라를 달아주는 민중적인 정치인군, 열렬의 청년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반을 제철화, 인생판화하고 청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청년대중을 위하여 발이 뚫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동지가 되고 양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 부문의 청년들과 청년동맹사업은 당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든 관점과 림장을 가지고 동맹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으로, 청년맛이 나게 제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7 면으로 계속



조선소년단 축하하단 축하하시 축하를 드려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평양 광복거리
원복관에
높이 솟아 빛나는 김
청년운동사적관에
어제동무 손잡고 찾아왔던 날

오늘도 청년들과 함께 계시는
대원수님들 우리려 인사드리며
우리는 알았어요
어머니 우리 땅이 오빠, 언니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백두의 그날부터
청년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 끝이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오빠, 언니들의 대회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남이 가면 갈수록 커가는 사랑
현없는 고마움에 가슴지시는
온 나라 오빠, 언니들의 마음도
함께 담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원수님들의
청년조직으로 영원히 빛내이고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모두가
어머니당 제7차대회 결정판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갈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대회
명세로 불리는 총성의 대회
청년동맹의 교도자 조선소년단은
가장 열렬한 축하 축하를 드립니다

대표오빠, 언니들
밝은 희망 넘치는 우리 집 하얀
벽에는
청년동맹 제8차대회가 열린던 날에
대원수님들 모시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학교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우리라고 또 우리라면
살은 시절의 나의 아버지
사진속의 아버지는 말합답니다

대원수님들과 어머니당의 품에
안긴
우리 나라 청년들보다
더 행복한 오빠, 언니들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아 말하는 사진
그것이 실 때면
대원수님들 생각이 자꾸 납니다
청년운동으로 혁명을 시작하신
김일성대원수님

청년들을 이끄시어 일제불 처부
시키고
청년들을 이끄시어 미제를 때려
부시고

청년들을 이끄시어
사회주의 꽃동산을 펼쳐주셨
습니다

풍정
민정
사모정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이것은 정녕
김일성대원수님 열어주신 길
김정원수님 펼쳐주신 길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따라
청년동맹이 달려온
지팡한 승리의 한길이었습니

대원수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청년동맹 제8차대회가 열렸던
그날로부터 날과 달은 흘러
10년 또 10년 또 10년
그날의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었고

청년동맹은
대원수님들의 손길을 따라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벌동대로
총정과 위훈을 세기며
온 세상에 그 이름 펼쳤습니다

정녕 잊을수 없습니다
청년중시를 우리 당의 전략적요선
으로

청년들과의 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 계시던



아버지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를 이어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라고
혁명의 횃불봉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으로
그 이름 빛내어주시며
김일성대원수님 영상을 높이 모신
청년동맹기반도 수어해주셨습니다

말리는 아전자안에서
꼭잡아져 그리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길에서도
아버지장군님 마음속엔
언제나 청년, 청년들이 있었습니

청년들을 크게 믿으시고
청년영웅도모건설을 통채로 맡겨
주시고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고 하시며
말리는 아전자도 멈추시던 우리
장군님

통장님이 몇말을
찬눈비에 비벼먹으면서도
미더야 어서 가지
장군님대로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
스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청년들을 그리보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한키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하시며
손수 고기만두도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

옥류관, 청류관 정양의 이튿날
식당
뚜껑한 식탁앞에서
아버지! 아버지- 목놓아울던것이
어제 그날의
오빠, 언니들뿐이었습니

아 그 나날에
눈비에 젖은 아전복자락이
오늘은 우리의 고운 웃음이 되고
밤새워 말리면 아전자의 그
불빛이
총총 높은 새 집들에 밝게 빛나
는줄
우리 알기나 했습니

오실것 같아
그날처럼 김일성대원수님 모시고
아버지장군님 오실것 같아
주시던을 우리라고 또 우리라면

꿈결에도 그림면 우리 대원수님들
환하신 태양의 웃음으로
밝은 햇빛을 뿌려주시며
물없는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원수님들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대표오빠, 언니들
백두산담사행군의 그날에
원수님 정배주신 로정을 따라
백두산영웅청년법전소
밝은 불이 활짝이는 호수가에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흰줄 볼을 모아보면
면벽이는 혼잡들이 보일것만 같아
뜨기위치는 우리 마음속엔
오빠, 언니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며
원수님 걸으신 그 자욱자욱이
없음이 불길쳐왔습니다

대원수님들의 뜻으로
대원수님들의 손길로
우리 청년들을 키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마음쓰시고
얼마나 힘찬 길 걸으셨습니

청년동맹을
우리 땅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후대, 익축후대로
오빠, 언니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걸은길은 손잡아 이끌어주신
원수님

은 나라가 피눈물속에
새를 맞이하면 그날에도
청년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언제나 곧바로 땅을 따라 앞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없음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불멸의 모작으로
나갈 길도 한리 밝혀주셨습니다
주제100년대
셋 청년들을 맞이할 때도
청년전위 면벽에서 오빠, 언니들에게
축하하니까 보내주신 원수님

우리가 청년들에게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태양의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것
이라고
뜨겁게 말할수며
오빠, 언니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없음이 이어가신 길

아 그 길에는
원수와 총무리를 맞은 최전연초소
면적비밀하는 전실장
천비루리는 밤이며
참구의 교정도 있었습니

지재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고마은 스승이 되시어
언제나 형님, 누나들결에 계신
우리 원수님

날마다 떠어나는 이름
날마다 꽃피는 이름

산새속에서도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정의
모시고

우리말을 떠나간 언니
그 소생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말이나 그 언니의 이름을 부르시며
학생의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달라고
한자투자 친필도 보내주시고

청년비룡전구대회가 열린던 날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
그 언니가 그러도 대견하시어
쳐내어 어머니라고 다정히 불러
주시며
사랑의 사진도 찍어주셨습니

조직과 동무들을 떠나
시대의 막물이 되어 버린단엔 청년
들이
오늘은 시대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오래도 기뻐하시며
원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 같은신분 세상에 없습
니다

백두산영웅청년법전소를 찾으신
그날에도
하늘높이 솟아오른 언제를 바라
보시며
당중앙을 옹위하여선
우리 청년들의 모습같다고
그러도 태연해하시던 원수님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를 이어 불려줄
시대의 기념비를 세우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하시며
금방에서 동중 꽃방석에 동중
하늘끝에라도 들어주고싶은
마음
아슬한 언저 환복판에
영웅청년군갑도 세겨주시고

우려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말씀하실 때
백두의 하늘가에 떠서오르면
그날의 우렁찬 만세소리
오늘도 이 대회장에
물없이 메아리쳐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
원수님 불러주신 이름도 많아
영웅청년전위의 주인공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
청년비룡전구자...

정말정말 내 나라는
어릴 가나 이름도 많아
청년전위, 청년문화
청년작업단, 청년분조...

날마다 떠어나는 이름
날마다 꽃피는 이름

그 이름 다시한번 불러보며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복은 많고많아도
제일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인가
대를 이어 누리는 해님복이지
원수님 품에 안긴 태양복이지

그런데도 글세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복중에도 제일 큰 복은
청년, 청년복이라고요
정을 담아 뜨겁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빠, 언니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 거인으로
천만자투 품을 불러 키워주시고
민중을 또 민중을 안겨주시는
원수님은 지애로운 우리 아버지

사회주의 만세소리 높이 울려져
행복의 꽃동산의 주인공을 위해
천만마를 다 바치시며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오빠, 언니들!
나이는 어찌도 우리는 알니다
백두대지에서 오빠, 언니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그것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
오빠, 언니들의 가슴마다 넘치나
간절한 그리움이
그대로 총성의 날개
위풍이 날개가 되어
이 땅에 내려진것이 아니었습니

우리는 자랑합니다
사나운 폭풍, 불씨는 파도속에서도
기슬을 부리는 불길속에서도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부터
먼저 정히 모시고
은물이 불에 타면서도
조국의 민년세부 구호나루를 지켜낸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그
오빠, 언니들

우리는 자랑합니다
백두의 혼연일봉으로
천군을 오중을 7천대
진군을 벌며 나는 군위사단으로
백두의 혁명장군, 맹장들을 키워
내는 길에
병사들의 헌행이 되고 만누이가
되어주던
그 청년일군 형님, 누나들

백두의 불침성으로 세계를 흔들고
우리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도 칩씩 쏘아올리는
청년과학의 기관사가 되어
경제강국건설의 물과구를 열어가는
청년과학자 오빠, 언니들

우리는 자랑합니다

청년들께대 파견장을
백두청춘대학의 입학통지서로
받아안고
날아가던 새들도
돌덩이처럼 떨어진다 강추위
속에서도
청춘의 심장은 얼지 않는다
찬물에 뛰어들어 원수가 그대로
언제가 되고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어머니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리마다에서
청춘의 용맹과 기상을 떨치며
당대회 높은 연단에서까지
우리 원수님 크게 칭찬해주신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

축하를 드립니다
자강적 민복의 열의를 역세게 들어
취고
오늘도 당대회결정판의 돌과구를
낸 앞장에서 열어제끼며
만리마를 타고 이 대회장에 달려온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 축하를 드림
니다

명세로 불리는 이 대회장
자랑많은 대표오빠, 언니들의 모습
에서
우리는 봅니다
청년강국의 금자람으로 높이 솟아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백두산
대국을

김정원수님 높이 모시어
세상에 부딪혀오라 목청껏 노래
부르며
웃어도 남보다 크게 웃고
가슴에도 남보다 꼭 쥐고
세계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나가는 형님, 누나들

청춘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
눈부신 미래가 밝게 웃는 나라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이 세상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당당히 나가는 형님, 누나들

허나 지금 이 시각에도
미제와 제국주의원수들은
우리의 요람이며 우리 행복의 전부인
사회주의 우리 집을 위협해보려고
백룡공을 휘두르며
색이배진 사상문화의 함정을 파놓고
혁명 4세, 6세들인
오빠, 언니 우리모두를 노리고있습
니다

행복의 요람, 사회주의 우리 집이
없으면
공장의 주인이던 오빠, 언니들은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고
땅의 주인이던 형님, 누나들은
지주들의 머슴이 된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있어요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활하여 해칩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당의 운명은 청년들의 운명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는
청년동맹의 제일생명입니다

오빠, 언니들! 형님, 누나들!
500만이 팔을 끼면
천길만길의 성벽이 되고
500만이 말을 구르면
지구도 제어됩니다

오빠, 언니들은 모두가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가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500만개의 혁명관이 되어주세요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수호도 용기를 모르는 사나운
맹수가 되고
선군혁명의 제1선투사가 되어주세요

명령은 내렸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이
끓음이 썰렁 끓는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을 부름니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들의
천리마의 고삐를
오늘은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이
만리마의 고삐로 받았습니다

7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진소원공으로
영웅청년전위를 또다시 창조하여
조선청년의 본래를 보인 형님,
누나들

오늘도 200일전투의 기수가 되어
우리 혁명력사의 제1페이지 아래
새겨진
백두산기슭 삼지연앞에
조선로동당당내소리가
제일먼저 울려져서 하려고
청춘의 피와 땀을 다 바쳐가는
우리 당의 자랑인 오빠, 언니들

그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의 가슴마다에 굶주리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만리마의 발굽소리 더 높이 울리며
은 나라 조국땅이 그대로
청년, 청년만이 되게 하여주세요

소년단원 우리들도
원수님께 기뻐함을 드리는
오빠, 언니들의 그 모범 따라배워
남마다 주정지는 지며 5점일대로
강성조선의 앞날을
신성중에 먼저 새겨갈래요
합일의 아들단원들처럼
전위의 소년단원대, 소년맹제사들
처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참된 소년단원대, 소년혁명가가
필요요

자립성, 규율성, 집단주의정신으로
몸과 마음 혼돈이 다지며
앞날의 청년강국 주인공으로
오빠, 언니들의 뒤를 꼭꼭하게
이어갈래요

우리는 믿습니
남신의 푸른 소나무
영원히 한길을 가리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이 대회장에서
원수님앞에 다진 명세를 지켜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이끌어
온 나라 청년전위 형님, 누나들
모두가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힘차게 달려가는 맹장대부대의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들것을

우리는 기다리렵니다
백두산대국
사회주의강국의 문배를 남먼저
다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의 우렁찬
마치소리까지
정녕- 온 강안에 울려져질 그날을
손잡아, 손잡아 기다리렵니다

해주는 아침에도
별이 붉는 저녁에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마다 넘치는 소원은 하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백두에서 개최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속 완성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함있게 파시한 역사적인 대회로 조선청년운동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전체 청년동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하여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했것은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억년드눌지 않는 기쁨을 마련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는 온 나라 전체 청년전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뜻을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백두산청년강국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가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야회장인 5월1일경기장은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내어 주시고 주체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대한 무한한 흥모와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야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야회장에는 청년동맹 마크모형과 《제9차대회》, 《경축》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칙후대》, 《후비대》라고 쓴 글발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이라는 글발이 야회장배경대에 새겨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동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어저운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대석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또한 김용주 제일본 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 김영녀 재조선인 청년연합회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10편으로 계속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며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청년전위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무적인사를 보내시었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김경애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박법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와 리일환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위원장들, 청년동맹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김용주 제일본 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 김영녀 재조선인 청년연합회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성대히 진행



9 면 에서 계속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시대 청년학생들, 근로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야회를 관람하였다.

해불야회 시작을 알리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발언에 이어 해불봉을 추켜든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대오가 입장하였다.

특색있는 해불대형변화가 펼쳐지는 야회장에 《계승》, 《청년강국》,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말이 부각되었다.

《혁명의 계승봉》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속에 야회장에 달려나온 3명의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켜주시고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혁명의 해불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정리로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념의 해불, 투쟁의 해불이 될 500만 청년전위들의 굳은 맹세를 담아 봉화대에 불을 지피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공적전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기치로 따오를 만리마사대 청년봉화에 거세찬 불길이 솟구쳐오르자 야회장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라는 제명이 배경대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가 청년전위들의 응위를 받으며 야회장에 들어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등의 글말이 찬란한 빛을 뿌리었다.

조선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보여주는 《1927. 8. 28》, 《1946. 1. 17》, 《1996. 1. 19》 등의

글말과 백두산을 해불대형변화로 전처가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탁월한 청년중시정치로 청년동맹을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만들어나가는 믿음직한 권위투사들로 키우시었다.

백두에서 지켜올린 혁명의 해불봉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내여주시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와 따뜻한 어머니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투쟁의 년대기마다에 영웅적위훈과 자랑스러운 승리의 제지들을 아로새기며 영광년길 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결사옹위한 전세대 일렬청년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갈 의지가 《한별》, 《광명성》, 《청년전위》의 글말로 거세차게 타고르며 장대를 굽이 쳐갔다.

최세의 천출위인을 조선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청년전위들의 굽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야회장에 《원수님 모시며 빛나는 청년강국》의 글말이 부각되고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당마르, 원수님이 새겨지고 《영광》 등

의 글말이 펼쳐진 야회장에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우리 당의 제일가는 무기로 내세우시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불의 대화가 되어 파도쳤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움에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품, 그 품이 바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임을 타고르는 불의 세계로 감행길게 펼쳐보였다.

장엄한 불의 화폭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숭고한 인민사랑, 청년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백두산청년강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무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적전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맹세인양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의 글말이 배경대에 새겨지며 야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야회장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사도를 창조하며 계속혁신, 계속진전해나갈 일렬청춘들의 혁명적기개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대형들과 불의 불동이 연이어 펼쳐졌다.

충전하는 화광속에 새겨지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물격대》 등의 글말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당중앙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힘차게 내달리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변혁의 시대로 장식하여온 영웅청년사를 감회깊이 되새겨보게 하였다.

세상이 얼얼한 변한대에도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곧바로 나아갈 청춘의 피끓는 심장이 그대로 타고르는 해불이 되어 야회장을 격동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였다.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야회장에 들어서신 해불대오가 《백두혈통》, 《후비대》, 《익측부대》, 《익측부대》, 《수령보위》의 글자를 새기며 도도히 굽이쳤다.

혁명의 사명부를 결사옹위한 함일신령들과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지켜 싸운 영웅전사들의 무장정신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단대에 즉항쳐버리는 500만의 혁곡탄이 될 청년전위들의 역척의 신념과 열적의 기개가 야회장에 차넘치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혁명의 해불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일렬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인양 야회장에 《영원하라 청년강국의 해불이여!》의 글말이 펼쳐지고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야회가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값높은 청춘의 위훈을 버처럼 새겨가고있는 미더운 청년전위들에게 뜻깊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조직성과 규율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이며 만점이 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창작가, 지도교원,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장내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청년학생들의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청년학생들은 세상을 들었다놓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총정의 200일전투기표에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는 청년강국의 주인권 증시드높이 출몰등을 이어나갔다.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심장의 피를 울이어놓고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인양 축포의 피성이 장대를 진감하고 축포란들은 휘황찬란한 함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미래를 축복하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쳐놓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주체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들로 자라난 영웅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성이 어린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확언으로 꾸러갈 불타는 길에 동참되어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는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주체청년운동의 굽일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갈 김일성, 김정일청년전위들의 역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함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